

인생을 바꾸려면 목숨을 걸어라



석승일

-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건축학(5년제)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주)○○종합건축사사무소(2016~2019)
- 現)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I. 들어가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 ‘서른’이라는 나이가 가지는 의미는 특히 각별합니다. 저 역시도, 서른을 앞둔채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변호사시험에 이르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낮은 학점 탓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저는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 낮은 학점을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목숨걸고 매진한 결과, 다음 해에 치러진 모의시험에서 전국 10등권을 안정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대하던 합격증을 받아 들고 나자,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모범생과는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 역시 고시공부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진학하였으며, 무엇보다 3년간 건축가생활을 하며 교과서는 한 페이지도 들여다본 적

이 없는 제가 쟁쟁한 명문대학에서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온 학생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를 인도해 준 것은 회사생활과 수험을 병행하면서도 “목숨을 걸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바를 위하여 몰두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당당히 성취해본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막막하였을지언정 내가 마음을 담아서 노력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도전한 사람 백 명 가운데 여든 명은 고배를 마십니다. 여든 명을 제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나머지 스무명 중 3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열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머지 열명 중 두세명은 결코 변호사가 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변호사시험에 이르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승리와 패배가 분명하게 나뉘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승리는 결코 넘볼 수 없는 하늘의 별도 아니며, 요행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흘동안 하루 열 시간씩 치르는 시험에 운이 합불을 가를 여지는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의 성취를 만드는 것은 원하는 바를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불사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다입니다.

다만 ‘노력’이란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목차를 달리하여, 제가 공부하였던 방법 및 그 과정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I. 어떻게 노력하여야 하는가

1. 교재 고르지 않기

저는 공부를 하며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고시합격수기집을 읽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시험이라는 얇은 선 하나를 넘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과 합격자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생들과의 대화나 합격수기집을 읽으며 가장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책을 보아야 합격할 수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자신이 공부한 마음가짐이나 공부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할 뿐, 자신이 어떤 책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저자와 도서명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을 뿐, 이 책은 어떻게 저 책은 어떻게 하는 식으로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케케묵은 책만 아니라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수험가에서는 흔히 어떤 교재가 이른바 ‘대세’라느니, 어떤 책은 시류에 뒤쳐졌느니, 어떤 책은 양이 너무 많아서 수험적으로 부적합하다느니, 어떤 책을 보아야 합격한다느니 하

는 말이 흔히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교수님의 책, 같은 강사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수석도, 법관도, 검사도 나오는 반면 불합격생과 장수생, 끝내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성과의 차이가 교재의 좋고 나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수험가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교재라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합격에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모 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수험법학에서 두 번 본 책은 아예 보지 않은 것과 같으며, 적어도 다섯 번은 보아야 그 책을 내재화할 수 있으며, 어떤 판례가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가 어렵פות하게 떠오를 정도로 책을 읽은 사람이 떨어지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어느 수험생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어느 한 교재를 택하여 수 차례 거듭하여 읽으며 저자의 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채, 누가 추천한 책, 더 얇거나 더 자세한 책으로 철새처럼 옮겨다니다 보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실속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험날짜는 여러분의 실수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다가옵니다.

수험가에서 일정 이상의 명망을 얻은 책이라면, 그것이 교수님이 쓰신 책이든, 강사님이 쓰신 책이든, 그것이 얇던 두껍던 여러분의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침언하자면 여러분에게 맞는 책,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책도 없습니다.

다만, 익숙한 책과 익숙하지 않은 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의 책을 선택하여 이를 거듭 공부하시면서, 그 저자가 정립한 사고의 틀을 내재화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 시간 활용의 밀도 높이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있게, 밀도 있게 사용하는가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밀도 없이 열 두시간을 책상앞에 앉아 있기만 한 사람보다는, 밀도 높게 여덟 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가치있는 시간을 보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공부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을 더 공부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나머지 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방해요소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밀도있는 시간활용의 가장 첫 걸음은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외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을 차단하였으며, 카카오톡은 하루

15분 이상 켤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필요한 때가 아니면 아예 공부하는 장소에 들고오지 않았으며, 사용할 때에는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용도가 끝나자마자 집이나 사물함에 가져다두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정보기기로 인한 방해에서는 자유롭게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부중의 휴식시간에도 오롯이 '휴식' 자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식시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으로 도피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들은 소식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므로, 휴식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공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 직전의 1~2달을 제외하면 매일 꾸준히 11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으면서도 7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끼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공부 중간중간의 인스타그램 시청보다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밀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로 쉬우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정보화기기와 멀어지세요. 해방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3. 공부계획 세우고, 조정하기

공부계획에 있어서는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과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을 끌어오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민법, 민사

소송법(집행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선택법 및 해당 과목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을 모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아야 하는 책만 하더라도 책장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이런 시험을 계획없이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계획이 머릿속에 모두 들어있어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해당 학기에 공부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월별로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정하고, 월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별 목표를 정한 뒤, 일요일마다 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일 밤에는 그 때까지의 진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정’은 여러분의 공부계획을 실행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수험생활을 막 시작하신 저학년 때에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의 집중도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 때문에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세워둔 계획을 무조건 관철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계획은 모두 달성하였으나,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간계획, 즉 매일의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가능하다면 한 주의 목표와는 타협하지 않고, 월별로 목표한 사항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공부

계획의 수립에 아주 익숙해져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워둔 계획을 변함없이 매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6+1전략

공부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험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7일을 365일 공부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일주일에 만나질 정도는 쉬거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도 사람이기에, 살다보면 피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경조사일수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서 쉬고 싶거나, 소중한 약속이 생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1 전략이라는 것은, 한 주의 주간계획을 세우면서 6일치의 투입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1일은 한 주간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의 예비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예비일을 어느 한 요일이나 일자로 정해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비일을 고정된 어느 하루, 예컨대 수요일로 정할 경우, 수요일을 쉬고난 뒤의 금요일에 갑자기 경조사가 생기게 된다면 그 주의 공부계획은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

6+1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다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큰 부담없이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일 없이 성공적인 6일간을 보냈다면 만나질 정도는 임의로 휴식을 취하면서도 공부계획이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변호사시험 대비 수면패턴 조절

변호사시험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5일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입실하여 오후 7시가 다되어 시험을 마치고 나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3년간을 준비해온 실전에서 하루 종일 두뇌를 혹사시킨 탓에 온 몸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식사를 하고 책을 보며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자고 일어나서 책을 보기에 애매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험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6시간가량 수면을 취하고, 새벽 1~2시쯤에 기상하여 8시간을 내리 공부하고 시험장에 입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 직전의 8시간은 전 시험범위를 모두 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수면을 취하며 정신을 가라앉힌 탓에 집중도 역시 최상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저는 6월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씩 당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면시간이 뒤바뀔 것으로 인하여 시험기간에 혼란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① 휘발성이 강한 선택형을 시험전날에 2회독할 수 있다는 점, ② 휴식일을 이틀처럼(3일차 오전2시-오후7시, 4일차 오전2시-오전9시) 활용해서 시험중간에 공부시간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Ⅲ. 마치며

흔히 수험생활을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흘러나가는 머릿속에 압도적인 양을 쏟아부으면 남는 것이 생기고, 그것들이 모여 실력이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결심한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0과 1은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결심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원하는 바를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불사를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입니다.

공부와 시험, 또 공부와 시험, 깨진 독에 하

염없이 작은 바가지로 물을 퍼담는 것 같은 하루가 괴롭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셨을때의 설레임과 입학허가를 기다리기까지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기억하시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모레를 하루 하루 차곡차곡 쌓아가시다보면, 여러분도 모를 사이에 여러분은 성취를 목전에 두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나는 목숨걸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십시오. 제가 이 글에서 전해드린 노하우들은 제가 스스로 부딪히면서 얻은 노력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나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써야 할 내용이 떠오르면서, 내가 공부를 헛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노력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해보신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사면서 마주할 또다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